효성, 스마트그리드 사업 “본격화”

전력공사에 50MVA급 스테콤 공급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사업도

효성(대표 조석래)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스테콤을 공급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효성은 한국전력공사 신제주변전소와 한라변전소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제품인 50MVA급 스테콤(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2기를 9월 공급한다고 8월23일 발표했다.

스테콤은 전기의 송배전 시 손실전압을 보충하고 전력운송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이다.

반도체 스위치를 이용한 전력전송시스템(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의 핵심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 기상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해도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효성은 2006년부터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345kV 100MVA 스테콤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한전의 미금변전소에서 시운전을 거쳐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2010년에는 제주 행원 풍력발전단지에도 스테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효성은 전기자동차(EV) 충전장치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2010년 말까지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충전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문 효성 중공업부문장은 “차세대 전력산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고 있다”며 “40여 년간 전력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4>